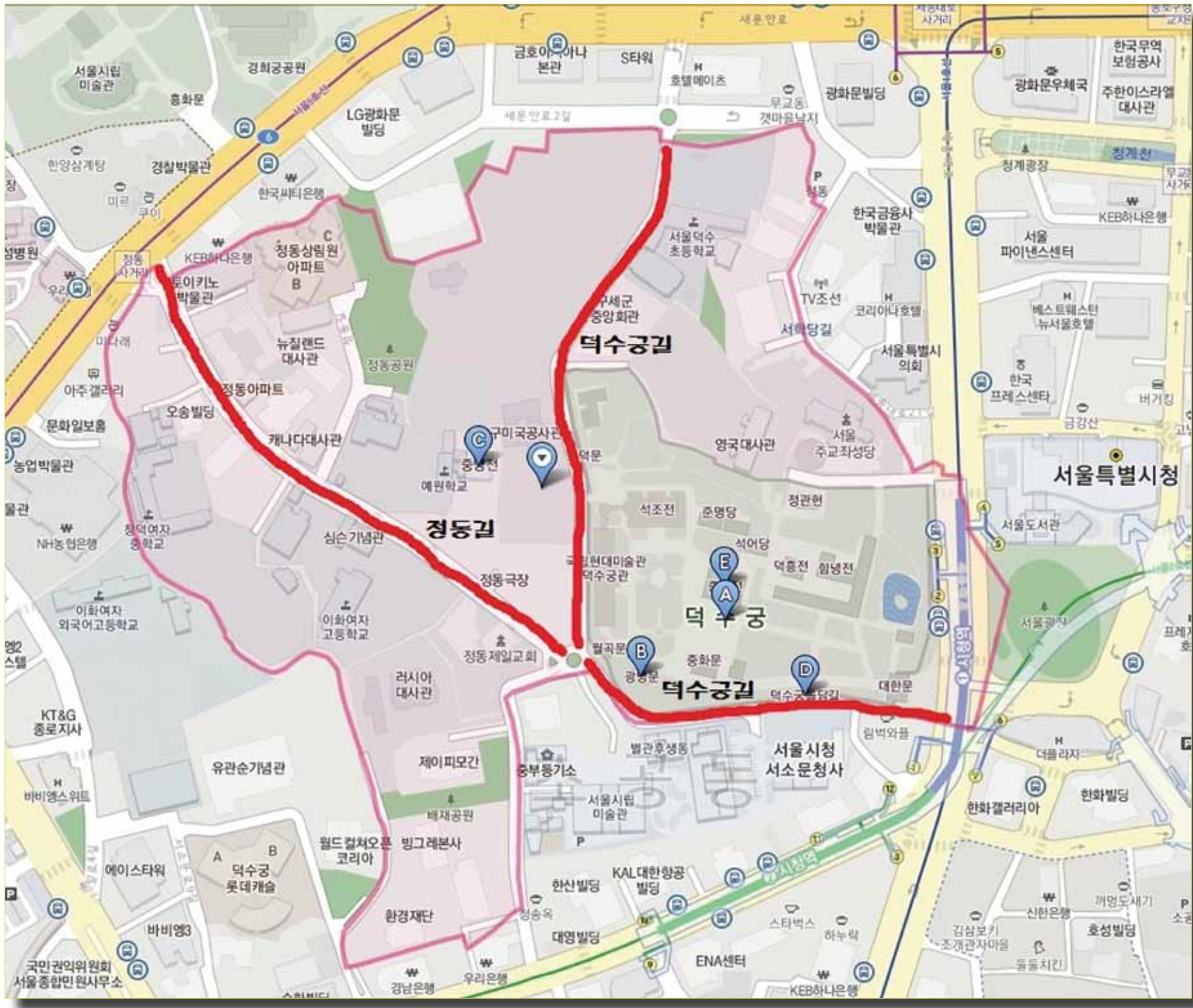


도시재생 후보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

정동, 발자국

근대시기 외교와 문화의 중심이었으며, 예스럽고 이국적인 거리였던 정동

정동의 주요 도로인 '덕수궁길'과 '정동길'을
항시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하고,
보행자 거리를 십분 즐겁고 의미 있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동, 기억의 사진첩'과 '정동, 기억의 편지함'을 설치한다.



'덕수궁길'과 '정동길'의 차 없는 거리 지정의 의미와 타당성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미래 도시의 핵심 가치는 '걷기'이다."
"그 도시가 걷기에 얼마나 적합한가는 살기 좋은 도시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이다."
"사람이 모이는 거리는 이유가 있으며, 도시와 지역이 흥하게 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바로 '걸어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프 스펡,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

- 보행친화성이 높은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이고,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
차량 위주로 도시가 계획되었고, 주차공간 확보가
심각한 교통문제인 서울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보행친화성은 높지 않다.
현재 대한문에서부터 정동제일교회까지, 덕수궁길의 일부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고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항상적이지는 못하다.
- 현재 차량이 다니는 '덕수궁길'과 '정동길'은 서울의 다른 중심가에 비해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아서 서울 중심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차 없는 거리로 지정했을 때의 위험부담이 적다.
'서울 중심가 차 없는 거리 지정 프로젝트'의 시작지점으로 훌륭하다.
 -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조선 최초의 러브스토리,
외교와 문화의 중심으로서의 각국의 공사관, 교회, 학교, 병원 등의 건축물,
교육기관, 교회 등 끊임없이 '최초'의 수식어가 붙는 것들 등
문화재가 눈과 발로 치이는 정동을 온전히 걸으면 의미와 기쁨이 배가된다.

정동을 더욱 걷기 좋게 만들어줄 '기억의 사진첩'과 '기억의 편지함'

- '덕수궁길'과 '정동길'의 주요지점(대한문, 정동제일교회, 정동극장 등)에
'기억의 사진첩'과 '기억의 편지함'을 설치한다.
다른 곳에서는 접근할 수 없고,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그 근처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진과 편지를 업로드할 수 있게 한다.
- 친구들과 산책, 혹은 데이트를 한 이들이 정동의 곳곳에서 찍은 사진을
사연과 함께 지정된 사진첩 장소에 가서 업로드 한다.
산책하거나 여행하며 정동에서 얻은 감정들을 정리한 편지를
지정된 편지함 장소에 가서 업로드 한다.
- 시민들이 업로드한 것들을 모아 2주에 한 번 정도 우수작을 뽑아
정동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정동극장에서 쓸 수 있는 공연티켓을 상품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인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

앞서 밝혔듯, 도시가 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걸어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동을 걸었던 시간들을 기억의 사진첩과 편지함에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자연스럽게 지역을 공부하고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

보행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과 궤를 함께 하는 '정동, 발자국' 프로젝트는,
향후 광화문에서 송례문까지 이르는 '세종대로' 구간을
차 없는 거리 - 보행자 전용거리로 만들어
단절되어 있는 도시공간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걷기를 통해 도시가 가진 시간의 흔적을 함께 기억하고 공부하는,
커다란 의미가 될 것이다.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위한
좋은 선례를 보여주기 위해,
정동의 '덕수궁길'과 '정동길'을 제안한다.